



상긋한 봄내음 메타세콰이아
지난 22일 따뜻한 봄날씨에
타세콰이아 가로수길을 삼삼오오 걸으며 봄의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담양=정재근기자 jigg@kwangju.co.kr

장성군에 가면, 책 보면서 민원업무도 봐요

군청사 로비에 마련한 작은 도서관 '열린 서재'...주민 쉼터로 인기

2000여권 베스트셀러·신간도서 대출도... '책 읽는 문화' 확산 유도

군청이 단순히 민원을 보고 업무를 처리하는 공간이 아닌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문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장성군이 군청사 로비를 '열린 서재'로 운영하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사진> 책을 앉아서 볼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대출도 가능하다.

장성군은 23일 "지난해 9월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민들의 편이한 서비스를 위해 군청 로비에 열린 서재를 설치하면서 주민들에게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밝혔다.

로비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열린 서재는 베스트셀러를 포함한 신간도서와 신문, 안락한 의자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군청을 찾는 주민들은 민원이 처리되는 시간 잠시 머무르며 책을 읽거나 신문을 보는 등 민원인 쉼터 공간이 되고,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학습만화도 있어 놀이방으로도 쓰이고 있다.

최근에는 중고등학생 등 청소년들의 만남의 장소로 인기를 얻고 있

으며, 공직자들 역시 점심시간 같은 틈새 시간을 이용해 서재에 들러 독서를 하는 등 호평을 받고 있다.

현재 이곳에는 베스트셀러와 신간도서를 포함한 책 2138권이 주제별로 찾기 쉽게 정리돼 있으며, 1주일 기간으로 무인 대출도 가능하다.

군은 정기적으로 최신 도서로 교체하고 기존 도서는 아카데미하우스에 재배치하는 등 체계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설치한 지 7개월 지난 시점에서 군청의 열린 서재는 장



성의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자리잡았다"며 "앞으로도 독서문화 저변 확대와 책 읽는 장성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서재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성아카데미하우스는 지난 15일 최신 베스트셀러 및 추천도서 626권을 추가로 비치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학폭 예방' 담양학생생활지원단 출범

학교·지역사회단체 통합연계 체계 구축

담양교육지원청이 최근 '2013 담양 학생생활지원단 출범식'을 갖고 학교와 지역사회 통합연계 체계를 구축했다. 생활지원단 단장은 담양교육지원청 조성춘 교육지원과장이 맡았으며, 지역사회 단체 소속 관계자 등 13명이 단원으로 위촉됐다.

출범식에서는 담양경찰서 최재봉 생활안전계장이 '아름다운 동행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이란 주제로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담양을 생성한 사례를 발표했다.

또 담양청소년복지센터장인 전남도립대 송준식 교수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상담의 목표, 종류, 유형, 상담관계의 형성, 상담자의 자질, 상담의 구조와 등에 대해 특강을 실시하

기도 했다.

담양학생생활지원단은 올 한 해 동안 학교폭력예방 활동을 위해 위기·부적응 학생 상담 활동,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프로그램 운영, 호남대 다매체영상학과 재능기부 '나는 셔틀이다' 연극 공연, 블루밴드 캠페인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인식 교육장은 "변화하는 교육현장 속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한 지속적 활동을 통해 학생의 인권 존중 및 안정적인 생활 풍토를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문화를 창출하기 위해 학생생활지원단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담양=정재근기자 jigg@

강진군 기초수급자·취약계층 대상

빈곤 탈출 '직업상담제' 큰 호응

강진군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일자리가 필요한 취약계층에 근본적인 빈곤탈출을 위해 도입한 자립지원 직업상담제가 호응을 얻고 있다.

강진군은 23일 "지난 1일부터 강진군청 주민복지과 소속 자립지원 직업상담사가 조건부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취업 대상업체를 발굴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립지원 직업상담사는 취업교육, 연련, 하력 등을 토대로 각각의 대상자에게 맞는 자립지원 계획을 수립해 주고 그 이행 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의 직업능력을 관장, 취업 경로를 설정하고 취업성

독거노인-공직자 결연

소외계층 복지사각 해소

회순군

회순군은 23일 "취약계층 독거노인과 공직자의 결연 확대를 통해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적 안정망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6급 이상 공무원과 독거노인 일대일 결연을 맺어 직접 독거노인에게 애로사항을 듣고 불편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지원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복지사각지대의 소외계층 노인들을 직접 방문해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군은 고령화 시대의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직자와 독거노인의 결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강진=남철희기자

회순군은 23일 "취약계층 독거노인과 공직자의 결연 확대를 통해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적 안정망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6급 이상 공무원과 독거노인 일대일 결연을 맺어 직접 독거노인에게 애로사항을 듣고 불편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지원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복지사각지대의 소외계층 노인들을 직접 방문해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군은 고령화 시대의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직자와 독거노인의 결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회순=조성수기자 css@

민선 5기 기초長 공약이행·정보공개

순창군 '최우수군' 선정

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민선5기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순창군이 도내에서 유일하게 전국 최우수군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순창군은 전국 227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2012년 연차별 목표달성분야 ▲공약이행안료분야 ▲주민소통분야 ▲웹소통분야 ▲일치도 분야 등 5개항목에 걸쳐 실시된 이번 평가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받아 종합평가결과 최고등급인 SA(최우수)등급을 받게 됐다.

평가는 지난해 말까지 공약이행상황에 대해 이달 초까지 시민사회 활

동가, 교수, 전문가 등 34명으로 구성된 로컬매니페스토 공약이행평가단이 각 지자체에서 홈페이지에 게시한 자료를 토대로 SA, A, B, C, D등급으로 나눠 실시했다. 순창군은 공약이행평가의 제도적 환경마련 등을 살펴본 '주민소통 분야'와 지자체장의 약속 실천 정보를 상시적으로 공개하고 지역주민들이 쉽고 편하게 정보에 접근하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묻는 '웹소통 분야'에서 탁월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순창군의 민선5기 공약사업은 완료 30개 사업(64%), 정상추진 중인 사업 16개 사업(34%), 추진 중단 1개 사업(2%) 등 총 6개 분야 47개사업이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75세 이상 노인 6340명

치매검사 우편물 안내

군산시 보건소

군산시 보건소는 치매 고위험군인 만75세 이상 독거노인 및 올해 75세가 되는 노인 6340명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선별검사 안내문을 개별우편 발송한다.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노인에 비해 치매에 걸릴 확률이 2.4배 높으며, 75세 이상의 노인이 65세에 비해 치매위험이 80% 더 높아 만 75세 이상 독거노인 및 올해 75세가 되는 노인을 치매 고위험군 집종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또 군산시 보건소는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선별검사를 연중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광한루원 주변 차량통제

남원시, 춘향제 행사 기간

남원시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펼쳐지는 제83회 춘향제를 맞아 차없는 거리 조성에 따른 광한루원 주변의 요천로와 남문로에 대하여 차량 통제를 실시한다.

전면통제는 2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로, 통제가 실시되는 구간은 요천로(승사교 4가 ~ 춘향교 3가)로이다.

또 춘향제 행사 기간인 26일부터 30일까지는 광한루원과 주변 체험장을 찾는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요천로(춘향교 3가)와 남문로(제일은행 4가, 삼다리 4가)에 대해 차량 진입이 금지된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전북

군산·익산·전주 등 3개 도시 합동

해외 수학여행단 유치 공동마케팅

전북지역 대표 관광도시인 군산시, 익산시, 전주시 3개 도시가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동마케팅 전선을 구축하고 삼일일체 관광마케팅에 나선다.

지난해 6월 중국 산둥성 일대 여행사를 공동으로 초청해 관광 상품 개발 홍보에 나선 군산·익산·전주시는 올해에는 일본 규슈지역을 주요 공략 거점지역으로 선정하고 료칸 여행의 중심지인 다케오시를 대상으로 일본 수학여행단 유치를 본격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산시 등 3개 시는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와 공동으로 일본 규슈지역 대규모 단체 패키지 및 수학여행 상품을 개발에 나

섰다. 또 한국 서부권 지역 관광상품에 관심이 많은 타케오시 지자체 관계자를 비롯해 타케오 중학교 등 학교 관계자, 한국 인바운드 여행사 대표 등 20여 명을 초청해 캠퍼유에 벌이기로 했다.

일본 규슈지방 사가현 타다케오시에는 소학교 11개교 3000여명, 중학교 5개교 2000여명 등이 재학하고 있다. 이번 캠퍼유에는 다케오시 부시장과 시장 비서관, 다케오 시의회 총무위원장, 교육위원회 위원장, 다케오 중학교, 카노노보리 중학교, 기타가타 중학교 교감 등이 대거 방한할 예정이다.

이번 캠퍼유는 24일 3개 시 공동 관광홍보 설명회를 시작으로, 1박 2일

간 익산의 왕궁리 유적과 미륵사지, 보석박물관을 소개한다.

또 군산의 새만금, 근대역사박물관, 신홍동 일본식 가옥, 동국사, 고구당, 이영춘가옥 등 군산의 근대문화유산, 전주 한옥마을을 비롯해 한지 축제가 준비되고 있는 한국전통문화전당과 한지산업지원센터, 전주국제영화제 현장인 영화의 거리 투어도 여행 프로그램에 포함됐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도시 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지난 2002년 창설된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는 현재 11개국 71개 회원도시 정부, 36개 민간단체 등 총 107개 단체가 가입돼 있다.

/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순창 직거래장터 인기

순창군이 지난 20일 순창을 방문한 충북 영동군 새마을금고 조합원 600여명과 일반관광객 2000여명을 대상으로 직거래 장터를 열어 관광객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직거래장터에서는 딸기, 두류, 양채류 작목반과 순창군 농산물 가공연구회 등 12개 생산자단체가 참여했으며, 60여 품목을 시중가격보다 20~30% 저렴하게 판매했다.

순창군이 지난 20일 순창을 방문한 충북 영동군 새마을금고 조합원 600여명과 일반관광객 2000여명을 대상으로 직거래 장터를 열어 관광객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직거래장터에서는 딸기, 두류, 양채류 작목반과 순창군 농산물 가공연구회 등 12개 생산자단체가 참여했으며, 60여 품목을 시중가격보다 20~30% 저렴하게 판매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kwangju.co.kr

단신

정읍 청소년성문화센터 휴피 개설

성교육 전문기관인 정읍시 청소년성문화센터가 개관 4주년을 맞아 홈페이지(http://www.jesay.net)를 개설했다. 성문화센터는 23일 "개관 4년을 맞아 좀더 다양한 성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누구나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4월23일 개관한 성문화센터는 정읍시를 비롯한 인근지역

인 김계, 고창, 부안, 순창 등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체험관 교육과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개관 이후 연간 약 2만여명에게 1000여건의 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는 성문화센터는 지역사회의 중추적인 성교육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해가고 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군산 철새조망대 '인간과 자연...' 학술심포지엄

군산시 철새조망대는 오는 30일 오후 군산대 황룡문화홀 1층에서 전국의 저명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을 위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동아시아 생태대학을 역임중인 국민대 김은식 교수의 '금강보전을 위한 유역관리방안'

을 시작으로 우효섭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의 '어메니티 복원모형'과 박미자 환경부 새만금지방환경청장의 '우리나라 생태관광의 정책과 혁신사례'등의 특강과 각계 교수 및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로 구성됐다.

/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부안군, 13억 투입 노인복지 프로그램 가동

부안군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가운데 노인들이 건강하게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군은 올해 13억원을 투입해 노노케어, 거리환경 개선사업 등 노인들의 근로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일자리 참여기간도 종전의 7개월에서 9개월로 대폭 확대했으며 670여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저소득층 독거노인 40여명에게는 참여기간 제한이 없는 연중 노인일자리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부안=정재용기자 jiy0681@

전북교육청, 급식 납품업체 위생상태 특별점검

전라북도교육청은 23일 "이달 초 도내 5개 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같은 학교급식 사고를 막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급식 납품업체를 특별 점검한다"고 밝혔다. 특별점검에는 도교육청 간부들이 직접 나선다.

황호진 부교육감이 이날 거제수산물 방문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과장

15명이 도내 급식납품업체를 6월까지 점검활동을 벌인다. 점검단은 작업과정의 위생관리와 환경 현황, 작업장 시설과 식재료 보관·관리 실태, 종사자의 위생 실태, 차량 수송 과정의 위생 관리 현황 등을 확인한다.

/전주=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